

부처간 협력과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더욱 애써 주시기를

박주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 겸 운영위원장

육아정책개발센터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가져왔던 불신의 상당부분이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이 되지 않고 막혀있다는 것과,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 이르러서는 정책이 왜곡되고 축소되어서 실제로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크지 않았던 데서 연유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관여해서 만든 육아 정책개발센터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그리고 균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처간에 협력해서 만든 정책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또한 육아정책이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현장발 정책에 접근하려는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전 2030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해진 우리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심신의 건강과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한 사회의 지원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지난 9월 1주년을 맞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금년 12월에 1주년을 맞는 육아 정책개발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가 복지냐 교육이냐의 논쟁은 20년이 된 해묵은 논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다분히 학문공급자의 입장에서 학과틀이 만들어지고, 또한 직업세계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다 보니, 대학의 학과들간의 영역다툼과 그와 관련된 부처간의 영역다툼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왜곡되고 지체되어 온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엄마들에게는 이미 보육과 교육이 별개가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지금부터는 보육이다, 지금부터는 교육이다’라고 구분지을 수 없는 것처럼, 심신의 건강과 인지능력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에서의 교육이

라고 할 수 있고,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과정에서 아이의 인성이나 잠재력을 잘 끌어올리는 것이 진정한 보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과도기 관리방안도 마련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비전 2030, 새로마지플랜 2010, 희망한국 21, 새싹플랜 등 국가의 장기 비전과 구체적인 과제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우선적인 과제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마련되고 예산까지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부처간의 조율이 잘 안되고, 지자체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얹힌 부분에서의 조정이 되지 않아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정부가 말만 하고 막상 하는 일은 없다라고 정부정책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사회정책에 대한 정책 체감도나 기대가 떨어져서 사회 일각에서의 감세론에 무분별하게 휩쓸리게 되고, 결국 아이들에 대한 사회의 지원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정책이라도 확실하게 현장에서 집행되고 체감되도록 하는 데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부처, 모든 지자체, 모든 연구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사회정책 전체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을 아동수 기준 30%까지 확충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 회의를 통해서 사회 각계의 합의사항으로 사회협약이 체결되었고,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자체와 민간보육시설의 소극적인 태도와 정부정책이 정교하게 이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충분히 감안하고, 민간보육시설과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하루빨리 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유휴교실을 활용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등이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조율하고 진전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만한 곳이 없어서 애써 취직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엄마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서 정부와 연구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이 밖에도 정부의 각 부처와 관련되어 조율이 필요하고 새로운 발상에서 접근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많이 발굴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더욱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